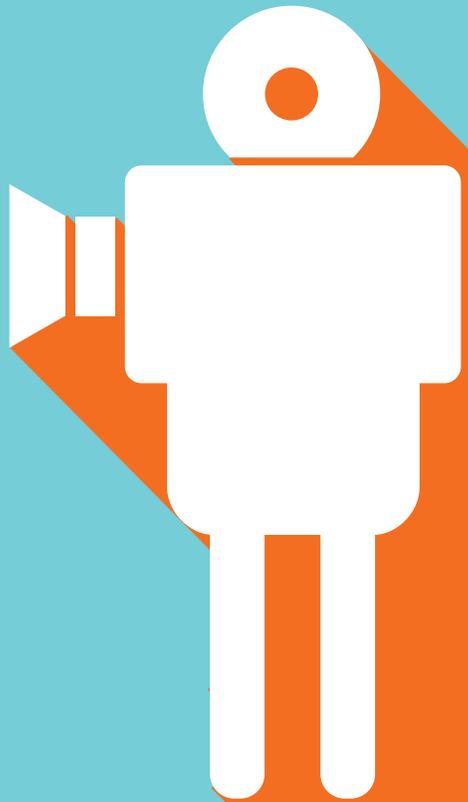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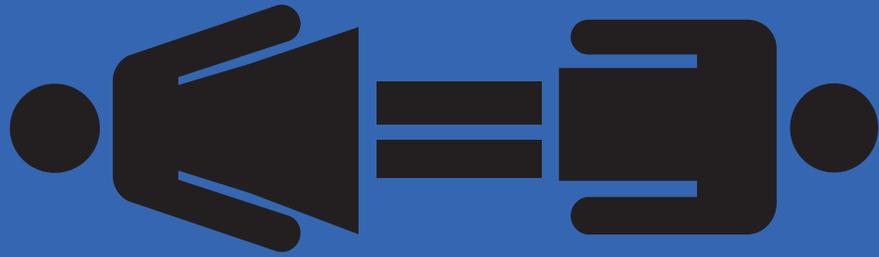
본 안내서에 포함된 방송 사례는  
내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용된 것으로  
특정 방송사나 방송인의 명예를 훼손할 뜻이  
없음을 밝힙니다.

**연구자** 안상수 · 김인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강혜란(여성민우회) · 박경희(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양성평등 방송 제작 관련 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례를 검토하고 PD, 작가, 정책 전문가 등 방송 실무자와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쳐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2016)」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방송이 왜, 양성평등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까요?



방송은 우리 일상의 삶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가 아기를 돌보고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송의 위력과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의 자산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생각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지만 방송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거나, 여성이 처한 현실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성 고정관념과 성 상품화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제작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양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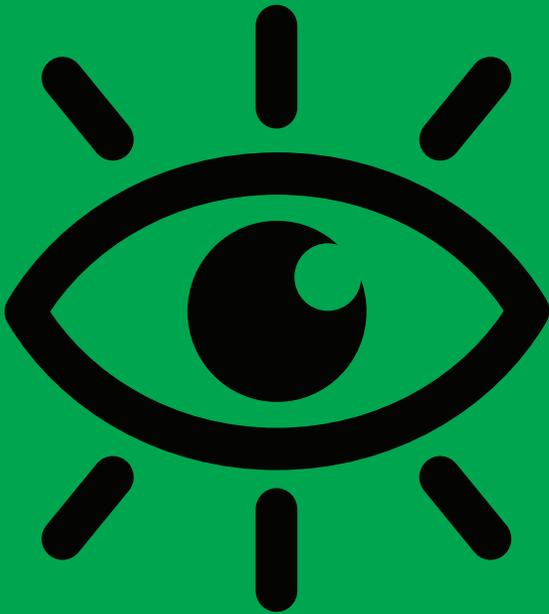
본 안내서는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점검해 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2017년 1월에 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고려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방송의 양성평등 실현은 모든 방송 관계자들이 양성평등한 시각과 관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 방송에서 지켜야 할

## 양성평등한 관점이란

###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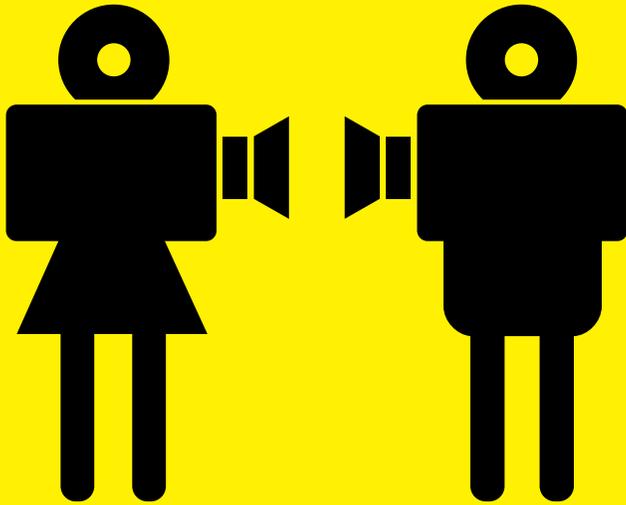
---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사는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 노력해야 합니다.



---

방송사는 양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 윤리강령과 제작지침, 심의기준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매체별, 장르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가족유형별로 다양한 묘사와 재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방송사는 자체 제작, 외주 제작, 프로그램 구입 등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재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송사는 제작진과 출연자에게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송사는 의사결정, 인적 구성, 기획·제작 과정 등에서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동등한 참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

#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하나!

주제 선정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 01 뉴스, 토론, 교양과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특정 성의 시각이나 관점이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방송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방송을 둘러싼 환경이 상업화되면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입니다. 여성의 시각과 관심사가 반영된 프로그램 편성은 드문 편이며 편성된 경우에도 지속성 있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방송은 언어에 집중된 성차별 문제를 넘어 성별 임금격차, 불평등한 사회적 대우 등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차별해소와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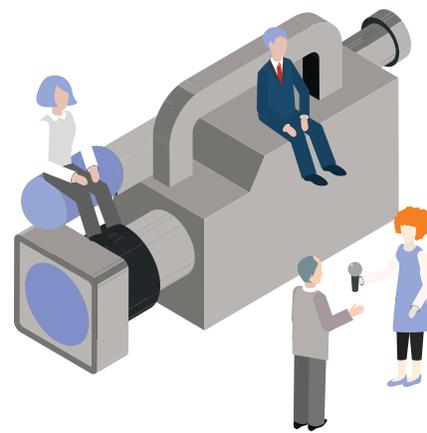
#### 이렇게 해요!

- ☑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여성은 토론, 운동, 모험에 부적합하다거나 남성용 기사, 육아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성별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 봅니다.
- ☑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방송사 전체 프로그램에서 양성평등 관련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봅니다.
- ☑ 주제 선정에 있어서 성폭력, 성희롱, 성형 등 시청률이 나을만한 주제를 제외한 다른 중요한 양성평등 관련 현안들이 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 봅니다.

### 좋은 방송 사례

〈여성토론 워드(MBC)〉, 〈주부, 세상을 말하자(KBS)〉 등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여성의 관점과 시선으로 다루었음.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살림하는 남자들(KBS)〉, 〈나 혼자 산다(MBC)〉, 드라마 〈불량주부(SBS)〉, 〈냉굴재 굴러온 당신(KBS)〉, 〈워킹 맘 육아 대디(MBC)〉와 같이 변화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다룬 프로그램들은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에 크게 기여함.



## 02 특정 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소재로 한 방송을 제작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단순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는 간과한 채 개인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워킹맘이 처한 불평등한 육아·가사 부담에 대해 남성의 참여, 장시간 근무, 육아·보육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조명하기보다 가정의 형편이나 개인의 역량에 더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단순화는 문화나 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 이렇게 해요!

- ☑ 여성들의 삶과 밀접한 이슈를 다룰 때 사회구조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합니다.
- ☑ 저출산, 낙태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경우 여성만의 문제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제작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 좋은 방송 사례

강남역 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언론이 '여성혐오 범죄냐 아니냐' 등 가해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SBS 뉴스보도는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기여를 했음. 해당 보도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인프라를 비판적으로 다루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음.



##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01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점 늘어나고 경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의견을 주는 전문가는 대다수가 성인 남성이며 이것은 공적 논의, 사회적 대안 제시에서 여성·여아의 의견이나 관점이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방송은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관점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요!

-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과정에서 자문이나 의견수렴을 할 경우 전문가 구성에서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단 구성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 직종 구분이 점점 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남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 프로그램 제작 시 진행, 출연, 인터뷰, 초점보도 등이 남성들의 조언 일변도로 구성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 02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의 인터뷰 대상, 초점보도 대상, 출연자 등이 성별로 균형있게 대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뉴스, 시사토론, 좌담회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토론·좌담회의 경우 진행자와 전문가 모두 남성 출연자가 많아 사회의 중요한 일은 남성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중요 의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합의에 이르기 위한 토론과 논쟁 과정에 여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요!

- 어떤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든 출연진 구성 전후로 성별 분포를 항상 체크합니다.
- 뉴스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 시사토론이나 좌담회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할 때 남녀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것이 불가피한지 재고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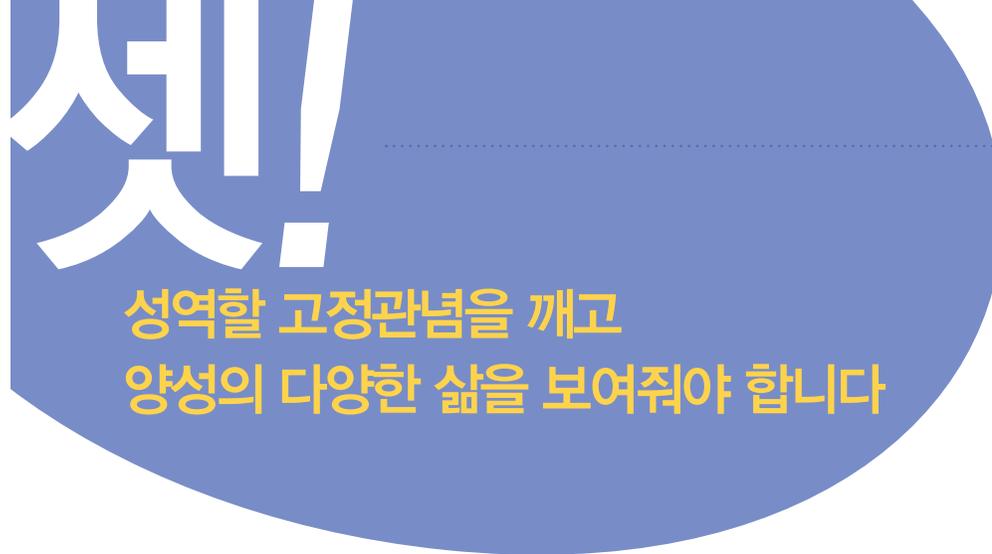
### 03 남녀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특정 성이 보조 혹은 장식적인 역할만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녀가 공동 진행을 하는 경우 남성은 지적영역인 멘트를 주도하고 여성은 감정영역인 표정 중심으로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남성이 주도하고 여성이 보조하는 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여전히 남자 진행자는 신뢰를 준다는 명목 하에 경력중심 선발을, 여성 진행자는 근무경력보다 나이를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남녀 공동 진행의 경우 진행자들이 지적·감정적으로 활발하고 자유롭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렇게 해요!

- 뉴스든 오락 프로그램이든 동등 수준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게 남녀 진행자를 선정합니다.
- 남녀 공동 진행시 진행자에 대해 시청자가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없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 01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남자는 씩씩하고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는 등의 이분법적인 묘사나 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남아가 주인공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성인 프로그램보다 성비 불균형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에서 “남자는 씩씩하여 적극적이고”, “여자는 얌전하여 순응적이어야 한다”는 편견이 두드러집니다. TV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제시되고 있는 메시지는 어린이에게 남녀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게 됩니다. 시대적 흐름은 여성성·남성성의 벽을 넘어 여성성과 남성성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송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방송 제작자들은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시 성역할 모델 제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요!

-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TV에서 제시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력이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훨씬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위험에 빠지는 역할은 여아가 맡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은 남자로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남아·여아 모두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남성적 특성·여성적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캐릭터를 제시합니다.

#### 좋은 방송 사례

〈꼬마의사 맥스터핀스〉에서 주인공인 꼬마의사는 흑인 여아임. 백인이 아닌 흑인이, 남자가 아닌 여자가 주인공 의사로 그려지고 있어 인종이나 성에 대한 열린 시각을 보여줌.

## 02 프로그램 내레이션이나 자막, 배경 등에 성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방송을 보는 동안 언제, 무엇을 배웠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레이션의 경우 사회·경제·정치문제를 다루는 시사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남성의 목소리로, 개인의 삶과 일상생활을 다루는 감성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여성의 목소리로 낭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성은 중요한 공적영역에 여성은 소소한 사적영역에 적합하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식사 장면도 남성 가장은 화면 정중앙에, 자녀들은 양 옆에 순서대로 앉는 좌석배치를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부장적 서열문화가 가정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 이렇게 해요!

- ☑ 출연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레이션의 경우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따라 성별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 ☑ 성과 연령 중심의 서열문화가 가정문화의 바탕이 되지 않도록 배치 문제에 민감성을 가지도록 합니다.

#### 좋은 방송 사례

〈꽃보다 할배(tvN)〉에서는 남녀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식사 시 자리 배치도 식사 준비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여성을 정중앙에 앉게 하는 등 서열중심 문화를 넘어서는 방식을 보여 주었음.

## 03 한 성이 다른 성을 보조하거나 능력이 뒤처지는 존재로 보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내가 맞벌이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근하는 남편보다 늘 먼저 집에 가서 기다리고 남편의 옷을 받아 걸어주는 등의 장면을 재현함으로써 위계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공적 역할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드러냅니다.

#### 이렇게 해요!

- ☑ 가정에 필요한 노동은 부부 공동 책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대화하고 의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아내는 일을 하더라도 가정을 돌보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 ☑ 여성은 문제를 일으키는 갈등 유발자로, 남성은 이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로 그려지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좋은 방송 사례

〈옥중화(MBC)〉에서 주인공 옥녀는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체담인(첩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무술시험을 통과하는 등 자신이 계획한 바를 향해 매진하여 마침내 성취하는 매우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짐.

## 04 개인의 성취를 묘사할 때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 등 서로 다른 기준을 강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자 아이돌 가수의 본분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노래 실력보다 성적 매력만을 강조하는 무리하고 황당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스포츠 중계에서 한 해설자는 경기를 치르고 있는 외국 여자 유도 선수를 향해 “살결이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위의 예들은 여성의 성취를 나타낼 때 능력에 대한 관심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음을 드러냅니다.

### 이렇게 해요!

- ☑ 개인의 성공 요인에 대해 성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합니다.
- ☑ 스포츠 중계 시 여자선수에 대해 불필요한 외모평가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 좋은 방송 사례

영화 〈감시자들〉에서 범죄조직을 감시하는 감시반 실장(남성)과 팀장(여성)이 등장함. 실장은 팀장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하지 않으며, 팀장을 능력있는 직장동료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줌. 팀장 역시 여성이라는 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캐릭터로 그려짐.

## 05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등장인물의 직업이나 지위를 획일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양 프로그램에서 MC가 특공무술을 하는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묻자 학생은 경찰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다음 인터뷰 대상자인 특공무술을 하는 여학생에게는 “경찰의 아내가 꿈이냐”고 묻습니다. 똑같이 특공무술 시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성별에 따라 다른 질문을 한 것은 성 고정관념을 드러낸 차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해요!

- ☑ 대부분의 남성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으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비전문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 각종 대회의 남녀 우승자에 대한 인터뷰 질문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관점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 ☑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를 소개할 때 남성은 ‘태극전사’와 같이 능력중심으로, 여성은 ‘미녀요정’과 같이 외모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좋은 방송 사례

〈낭만닥터 김사부(SBS)〉는 병원드라마로 여성 의사와 남성 간호사가 등장함. 특히 남성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과 임무 수행을 강조하고 있어 성을 넘어선 직업의 다양성을 잘 반영해 주었음.

## 06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여성만의 책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드라마에서 육아문제는 여성의 책임이며 여성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사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 뒤따라 주지 않아 육아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해요!

- ☑ 자녀가 다치거나 학업성적이 떨어질 경우 남편이 아내를 나무라는 장면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므로 양육은 부부의 공동 책임으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 ☑ 부엌은 여성의 공간이 아닌 가족의 공간이며, 요리 역시 여성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라 남녀가 생존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기능으로 그려지도록 합니다.

### 좋은 방송 사례

〈삼시세끼(tvN)〉, 〈오늘 뭐 먹지?(올리브TV)〉 등에서는 요리하는 남자들을 매력적인 인물로 그림. 〈집밥 백선생(tvN)〉은 남자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직접 실습을 하게 하여 남자들에게 요리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게 함.

〈정글의 법칙(SBS)〉에서는 여자들이 먹거리를 찾아 숲을 헤치고 위험을 감수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줌. 특집 다큐 〈아빠의 행복, 육아! 노르웨이를 가다(MBC)〉는 남편 육아휴직할당제와 선택근로제 등 남성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정책사례를 소개함.

## 07 전통적인 성역할과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이나 여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녀가 전통적인 성역할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택할 수 있게 된 것은 견고했던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성 전업주부를 일하는 아내보다 열등한 인물로 간주하는 것은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녀 혹은 부부는 각각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노동방식을 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요!

- ☑ 남성 전업주부, 남성 육아휴직자, 남성 보육교사, 남성 간호사를 비참한 남성과 거리가 먼, 매력 없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합니다.
- ☑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을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인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좋은 방송 사례

〈살림하는 남자들(KBS)〉에서 출연자는 살림을 돕는 게 아니라 살림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과 행동을 보여줌. 〈워킹 맘 육아 대디(MBC)〉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부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었음.

# 08

## 여성이나 남성의 아름다움을 획일적인 잣대로 규정하고 특정 외모를 혐오의 대상으로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의 얼굴에 대해 '선제공격'이라는 무기로 표현하고 다른 출연자에 대해서는 꽃잎 CG와 함께 '얼굴 금수저' 등의 자막을 사용해 외모에 대해 과도한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 이렇게 해요!

- ☑ 제작자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코드 혹은 현실의 외모 중시 현상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성 상품화를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봅니다.
- ☑ 시각화를 특성으로 하는 TV에서 외모가 중요한 식별코드로 작용하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남녀 출연자에 대한 첫 평가기준이 외모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 외모 표현에 관해 사용되는 용어가 유머 수준을 넘어 듣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열등감과 상처를 주는 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 09

## 한부모·비혼모·조손·이혼·독거·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족'은 양쪽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생각하고, 이를 벗어난 다른 가족 형태는 비정상 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삶의 방식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져 정상가족·비정상가족의 구분이 약해지고 있지만 단일민족, 정상가족 중심의 인식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사회적 포용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력이 요청됩니다.

### 이렇게 해요!

- ☑ 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한부모·비혼모·조손·이혼·독거·다문화가족)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일정비율로 배치되도록 합니다.
- ☑ 다양한 가족형태(한부모·비혼모·조손·이혼·독거·다문화가족)가 안고 있는 이슈를 다뤄줌으로써 사회적 거리감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 다양한 가족(한부모·비혼모·조손·이혼·독거·다문화가족)을 필요 이상으로 가난하고 문제 많은 가족으로 묘사하거나 외국인 신부에 대해 낮은 계층, 낮은 학력자로 인식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좋은 방송 사례

〈이웃집 찰스(KBS)〉는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의 고군분투하는 한국사회 적응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음. 가족이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가족애를 표현하며 마무리하는 모습에서 다국적 가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 네!

##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 01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선정적인 볼거리로 묘사하지 않도록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뉴스보도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한 삽화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여 성폭력 사건을 시청자들의 성적 호기심거리로 전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성폭력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선정적인 볼거리로 만들 경우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하게 하고 피해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댓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비난은 2차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요!

- ☑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를 제공하여 사건 보도를 선정적인 볼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 ☑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인 여성에게 잘못과 책임을 돌리는 보도 태도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02 성범죄를 관용적인 시선으로 다루거나 성희롱과 신체적·언어적 성폭력, 가정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보도 프로그램에서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 팔십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 없어.”, “이것이 계획적인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그런 것 아닙니까.” 처럼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렇게 해요!

- ☑ 성폭력·가정폭력을 다룰 때, 사고 당사자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동일한 책임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책임을 묻는 입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 내레이션과 인터뷰 등에서 성희롱은 진한 농담 정도로, 가정폭력은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둘만의 문제로 그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 03 데이트 폭력, 이별 후 폭력 등을 사소한 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방송은 아내 또는 여자 친구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압적으로 행해지는 남성의 폭력을 단지 결혼생활이나 데이트 중의 에피소드 정도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사진, 동영상 촬영을 애정 행위의 연장선 정도로 그리기도 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둔감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방송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해요!

- ☑ 연인이나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 ☑ 방송 중 약자의 결정권, 즉 'No'를 말할 수 있는 문화에 반하는 표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좋은 방송 사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KBS)〉에서는 여성의 반복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애를 해오는 한 남성에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함. '남자답다', '박력 있다'라고 해석되어 온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어 여성의 입장에서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진실보된 시각을 보여줌. 이러한 시도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04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어. 어린 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때는”, “바래다주면서 잘 잠그고 자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열어주니까”처럼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이렇게 해요!

- ☑ '맞을 짓을 했다', '밤늦게 따라간 사람이 잘못이다'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 ☑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상충할 때는 피해자의 시선, 약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따져 보았는지 점검합니다.

## 05 성폭력 피해를 순결이 훼손된 일 또는 수치스러운 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을 의연하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보도 방송은 '부끄러움을 이긴'이라는 부적절한 자막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해석하는 사회적 통념을 드러냅니다.

### 이렇게 해요!

- ☑ 성폭력 피해자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언어나 장면묘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다른 맥락이나 장면에서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임을 알려 주도록 노력합니다.

# 다섯!

##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 01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것을 바람직한 남성성으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것을 바람직한 여성성으로 묘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자아이가 우는 장면에서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라는 자막을 내보내거나 “남자가 쪼잔하게 이걸 따지겠냐”라고 말하는 등 남성은 나약하고 소심한 태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언어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한소리 하러 왔는데 가시나들 떠들면 정신 사납다. 얼른 내보 내라”, “정신 차려, 이 여편네야! 어미라는 게 집을 나가네 어찌네 할 자격이나 있어? 딸내미 간수하나 못해 놓고 어디서 큰소리아!”처럼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성의 태도를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는 언어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요!

- ☑ ‘여자는 ~해야’, ‘남자는 ~해야’와 같은 성 고정관념을 담은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불가피하게 쓰여야 한다면 전체 프로그램 내용 속에서 더 우월하거나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02 특정 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특정 성을 폄하하고 대상화하는 표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혐오·비하 표현 사용은 해당 언어에 대한 의미와 권위를 부여해 확산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은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해요!

- ☑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김치녀’, ‘김여사’, ‘맘충’, ‘한남’ 등 혐오 표현의 출현 배경과 맥락을 이해합니다.
- ☑ 특정 성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가 사용되었는지 체크하고 개선합니다.
- ☑ 혐오 표현의 사용이 혐오 현상의 부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경우라도 혐오 표현 사용이 과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수위조절에 엄격한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

## 03 특정 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외모 열등감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영계’, ‘꿀벅지’, 남성의 외모를 우열의 문제로 다루는 ‘180cm 미만 루저’와 같은 단어는 방송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입니다. 드라마 대사에서도 “그래서 생긴 건? 예뻐요?”, “어~ 완전 여신” 등 여성이나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일반화하거나 외모가 예쁘면 다른 건 모두 상관없다는 식의 사회적 통념을 강조하는 표현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해요!

- 특정 성의 외모를 우열의 관점에서 다루는 용어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특정 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용어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체크합니다.
- 위의 표현들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완충해줄 만한 또 다른 에피소드나 대사 등을 고민해 봅니다.

본 안내서는  
방송을 기획·제작·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TEL. 02)2100-6151, 6149 FAX. 02)2100- 6482

[www.mogef.go.kr](http://www.mogef.go.kr)